

“바다·산·별빛’ 어우러진 고흥으로 찾아오세요”

나로도 근해 삼치·감성돔 제철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서 힐링 우주천문과학관서 별자리 감상도 금산 해안도로·거금도 캠핑장 인기

황금빛 들판과 코발트 빛 바다가 어우러진 고흥의 가을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다. 이 아름다운 계절, 고흥의 맛과 멋을 온전히 느껴보는 건 어떨까.

고흥의 가을은 풍성한 먹거리로 가득하다. 나로도 근해에서 잡히는 삼치는 겨울로 접어들수록 맛이 절정에 달한다. 나로도 삼치거리에서 즐기는 삼치회와 구이는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

고흥의 청정해역에서 갓 잡아 올린 감성돔회는 가을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감성돔은 살이 단단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며, 특히 가을에 맛이 절정에 달하는데, 그 쫄깃한 식감은 고흥 바다의 맛을 그대로 전해준다.

육지의 맛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고흥에서 자란 한우는 부드러운 육질과 풍부한 감칠맛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숯불에 구운 한우를 즐길 수 있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특별한 풍미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고흥의 가을은 단순히 맛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체험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서는 피톤치



고흥의 가을은 황금빛 들판과 코발트 빛 바다가 어우러져 빼어난 풍광을 선사한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중산일몰전망대,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고흥우주천문과학관, 팔영산.

고흥군 제공

드 가득한 공기를 마시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편백 맨발길은 황톳길 위를 맨발로 걸으며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고흥의 가을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고흥유자축제’다.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유자라면 시식회, 고흥 9미 음식 페스티벌, 유자밭 막삼파티, 불꽃·드론쇼, 요일별 테마

콘서트, 유자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고흥의 가을 여행은 감성적인 순간들로 가득하다.

금산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며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감상해 보라. 도로 곳곳에 위치한 감성 카페들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다. 특히 거금도 정석 오토캠핑장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멋

진 전망을 자랑한다. 개별 데크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편안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해질녘에는 중산일몰전망대와 우도레 인보우교가 멋들어진다. 붉게 물든 하늘과 어우러진 바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가을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기에 고흥만한 곳이 있을까?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는 청량한 가을밤 하늘 아래 별들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800mm의 초대형 천체망원경으로 가을철 별자리와 토성을 즐길 수 있다. 3D 천체투영실에서는 우주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고, 야외 전망대에서는 녹동항과 소록대교, 거금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하다.

별빛 낭만과 더불어 고흥의 가을 정취를 만끽해 보자. 100대 명산인 팔영산에서 화려한 단풍과 사계절 푸른 나무들이 여러분을 반길 것이다. 8개의 봉우리를 오르내리며 곁에 두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은 가히 압권이다. 산아래 천년고찰 능가사에서는 고즈넉한 가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고흥에서의 여행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바다와 산, 그리고 별빛이 어우러진 고흥에서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만들 어볼 것을 추천한다.

고흥=심정우 기자

여수시,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설명회’ 읍면동 순회

여수시가 지난 11일 삼일동을 시작으로 2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찾아가는 설명회’ 순회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취지와 시민의견수렴 등 시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홍보영상 시청과 사업 설명,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오는 12월 12일(시전동)까지 실시된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삼일동에서 통장단 및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의 비전과 5개 만별 전략목표 등을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은 시민들과 함께 여수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가는 사업으로 이번 순회 설명회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여수=이경기 기자

광양시, LED 조명타워 설치 안전한 야간 교통환경 조성

광양시는 야간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길호대교 먹거리타운 앞 사거리와 물관리센터 앞 사거리에 조명타워가 설치됐다고 14일 밝혔다.

조명타워는 교차로 주변 보도와 차도의 조도를 3~7배 이상 높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시설물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각도 및 조도 조절이 가능한 LED를 조명타워에 사용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빛 공해를 줄였다”며 조명타워의 장점을 설명했다. 광양시는 △LF 앞 사거리 △덕례사거리 △컨테이너부두사거리 △금호교차로 △월평교 앞 사거리 △경철사거리 △서산교사거리에 조명타워를 설치해 운영해왔으며, 이번에 신규로 설치된 시설물까지 포함하면 조명타워는 총 9개가 됐다.

광양=안영준 기자

오늘 ‘제30회 시민의 날’ 개최 순천시 오천그린광장

순천시는 15일 오천그린광장에서 24개 읍면동 화합행사와 함께 제30회 순천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8만 순천시민이 하나되어 정원박람회 성공을 넘어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로 발돋움한 일류 순천의 자부심을 높이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오천그린광장 주차장에서 24개 읍면동 화합을 주제로 한 무대행사와 먹거리부스,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2부에서는 오천그린광장 메인 무대에서 제30회 순천시민의 날 기념식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순천시민의 상에는 2024년 파리올림픽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은 메달 2관왕을 차지한 남수현 양궁 선수가 선정됐다. 이 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된 대상자 중 순천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행사의 피날레로는 남진, 린 등 다양한 축하공연이 진행되며, 28만 순천시민이 함께 즐기며 마무리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해룡면 경로위안잔치 개최 음식 준비해 각 마을 경로당 전달

순천시 해룡면은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난 12일 각 마을 경로당에서 해룡면 제25회 경로위안잔치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의 그간 노고에 대한 감사와 위로 전하기 위해 해룡면 노인회(회장 김정수), 해룡면 청년회(회장 채승), 해룡면 행정복지센터가 힘을 합쳐 해룡면 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아 이번 잔치를 열었다.

올해 25번째를 맞이한 해룡면 경로위안잔치는 해룡면행정복지센터에서 기념식 후 청년회와 부녀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푸짐한 음식을 각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 경로당에 전달되어 마을별로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다.

해룡면 경로위안잔치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어느 때보다 더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을 경로당으로 직접 배달해줘서 감사하고 기쁘다”며 “이를 준비해 준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했다.

김정수 노인회장은 “해룡면 노인회에서는 오늘의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온갖 정성을 다해주시는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채승 청년회장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위안잔치를 통해 음식을 전달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해룡면청년회는 1987년 구성된 이래 매년 지역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경로위안잔치와 해룡전을 살리는 해룡천 환경정화 활동 등 지역을 섬기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제28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성료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구례문화예술회관과 동편제판소리전수관에서 열린 ‘제28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구례문화예술회관과 동편제판소리전수관에서 열린 제28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는 구례 출신의 국창 송만갑 선생을 기리고 국악의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구례군이 주최하고 (사)한국국악협회 구례군지부가 주관했으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호평 속 폐막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우승배)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광양읍 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20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가 역대 최다인 8만5000여 명 관광객들의 호평 속에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풍미 가득한 먹거리와 광양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 고품격 공연 등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사들로 운영됐다.

원님 행사 재현행사에 참여한 200여 명의 시민은 경찰서와 사회(봉사)단체의 지원으로 광양문화원에서부터 축제장까지의 약 1.3km 거리를 행진했으며 정인

화 시장과 우승배 축제추진위원장에게 백운산 숯불화로 조형물을 전달하는 이색 퍼포먼스를 펼쳤다.

연계 행사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드론을 활용한 ‘드론 라이트쇼’와 드론체험 부스로 이뤄진 ‘2024 광양 드론 페스티벌’, 제4회 K-POP콘서트 식전 무대에 오를 댄스팀을 선발하는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씨름대회 등이 마련돼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방문객들은 전통 숯불구이를 맛볼 수 있는 한우 시식회, 시민들의 끼를 맘껏 펼치는 동아리 페스티벌, 빙고 스탬프 투어, 매들이 포토부스, 길거리 공연(버스

며, 판소리와 고법 분야로 나뉘어 열렸다.

판소리 분야에는 초등부 18명, 중등부 16명, 고등부 13명, 신인부 59명, 일반부 13명, 명창부 11명, 총 6개 부문 130명의 소리꾼이 참가했으며, 고법 분야에는 학생부 8명, 신인부 41명, 일반부 9명, 명고부 5명, 총 4개 부문 63명의 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판소리 분야명창부대상(대통령상)은 김문희(41세, 군포)씨가 수상하여 상장과 함께 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고법 분야 명고부 대상에는 이수진(38세, 부산)씨가 수상하여 상장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국 단위 경연대회인 송만갑판소리고수대회를 통해 전국의 명창들이 모여 기량을 뽐내고, 우리 소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이 대회가 우리 소리의 발전과 계승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킹) 등 시선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며 인파로 북적거리는 축제장 곳곳을 누볐다.

축제에 참석한 한 시민은 “콘테츠와 프로그램이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된 축제다. 가족들과 함께 멋진 공연도 보고 숯불구이도 맛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우승배 축제추진위원장은 “제20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색적인 행사, 볼거리 즐길 거리 모두 풍성하게 마련해 남녀노소 누구라도 만족할만한 축제로 기획했다”며 “역대 최다 관광객이 방문했음에도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축제 운영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